

지식정보화

김병조 / 국방대학교 교수

2000년 1월이 1999년 1월 또는 2001년 1월과 무엇이 다른가? 서구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새 천년이란 어떻게 보면 환상이요, 이미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0년 1월은 1999년 1월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다가왔다. 우리에게 2000년은 세기 말 부딪친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케 하는 해이다. 북한도 김일성 사망 이후의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2000년대를 희망의 연대로 보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새 천년은 Y2K 문제로 시작되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북한도 군사 기술에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이는 북한 정부가 아무리 주체 89년과 당창건 55돌을 강조할지라도 북한 역시 컴퓨터로 매개되는 지식정보화시대의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등장

지식과 정보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창출해낸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인간

이 자연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식과 정보는 개인이나 집단에 분산되어 있었고, 개인과 집단이 광범한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에 접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가장 강력한 지식과 정보의 수집자·생산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경우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및 전달이 정치적 권력 유지는 물론 경제적인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지식 정보 사회는 매우 최근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90년대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① 탈냉전으로 인해 군사용 정보통신 기술이 민간 기술로 이전될

수 있었다는 점. ② 민간 기업이 정보통신 기기의 경량화를 통해 상업화에 성공하였다는 점. ③ 대중화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④ 지식과 정보 자체가 상품화되었다는 점. ⑤ 일반 대중들이 정보통신 기기를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이 있으며,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통신과 컴퓨터가 융합된 인터넷의 개발과 확산은 개인을 중심으로 무한대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은 아직도 요람기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확산 속도로 보아 인간의 경제 행위, 정치 행위 및 인간 관계 모든 측면에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인식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이 지식 정보화 사회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지식 정보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선 국가들은 북미·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여전히 세계 인구의 3/4은 모뎀이나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주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 정부가 전화 회선 증

북한에서 정보통신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인민에게 전달·침투시키는 주민 통제 수단, 현대전의 신경망으로서 국방력 강화 수단 그리고 경제력 증진을 위한 과학 기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주민 통제 수단과 국방력 강화 수단이 최우선적이었고, 정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1984년 김일성이 유럽을 순방한 것을 계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설, 자동화 교환기 사업, 광통신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이나 나진·선봉지역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개인 용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 정보통신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인민에게 전달·침투시키는 주민 통제 수단, 현대전의 신경망으로서 국방력 강화 수단 그리고 경제력 증진을 위한 과학 기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주민 통제 수단과 국방력 강화 수단이 최우선적이었고, 정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1984년 김일성이 유럽을 순방한 것을 계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관건으로 과학 기술 부문 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바 있다. 1999년 3월에 열린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인민 경제 증진 수단으로서 자동화·로봇화·컴퓨터화가 강조되고, 자본이 적게 들면서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부각시켰다. 구체적으로 과학 기술 계산 프로그램, 강령

북한이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경제난이 현실적인 이유인 것은 틀림없지만,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체제의 속성상 북한 정부가 지식 및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이 남한으로 하여금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식정보화시대를 발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98. 창덕, 은바둑 등 프로그램 개발과 과학 기술 자료의 보급을 위해 중앙 기관·과학 교육 기관·중요 공장 기업소를 연결하는 컴퓨터망 체계가 구축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1999년 10월에는 조선중앙TV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위성중계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인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터넷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물적 유통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도 중앙 집권적 소유와 분배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기 매우 힘든 상태이다. 일반 주민 생활에 정보통신 기기를 보급하는 데는 아직 무관심하다. 위성 방송 중계가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이를 시청할 수 있는 곳은 국제 호텔 등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남북 대치 상황: 지식정보화시대 진입의 장애

북한이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경제난이 현실적인 이유인 것은 틀림없지만,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체제의 속

성상 북한 정부가 지식 및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지식 정보화 수준에서 남북한간의 격차는 매우 크다.

그러나 남북한간 지식 정보화 수준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남한 역시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하기 보다 주변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이 남한으로 하여금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식 정보화시대를 발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첫번째 배경으로 '탈냉전'을 든 바 있다. 탈냉전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미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정치·군사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정보나 지식의 교류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만일 정보나 지식의 교류가 정치·군사적 위협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누가 판단할 것인가라는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류 행위가 큰 폭으로 제한되고, 이는 다시 정보나 지식의 발전을 제약하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틀 속에서 200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식 정보화 사회는 창의력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창의력은 획일화된 사고의 극복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남북 대치 상황은 우리에게 사고의 틀을 강요한다. 현실적인 우리

의 적 북한의 존재는 개개인
의 사유 방식 속에 부지불식
간에 자기검열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자기검열제도란 개
개인 속에 자신보다 권위를
갖고 있는 조직·집단을 만
들고 그의 의도에 나를 맞추
려는 의식적·무의식적 작용

이다. 그 결과는 창의성있는 '나'의 부분적인
상실이다. 물론 이러한 강제적인 '우리'의 창
출은 사회 질서 및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
하다.

하지만, 사유의 틀이 제한되면 새로운 지
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데는 제약이 된다. 예
술이나 자연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들
이 나타나지만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세
계적인 인재가 희소한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
가. 결국 남북 대치 상황이 본격적인 교류협
력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성취
해야 할 전제가 된다.

또한 지식 정보 사회는 구성원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한 사회이다. 인터넷 세계란 경
제 행위, 정치 행위 그리고 인간 관계가 대면
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컴퓨터와
통신이라는 기계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
어지는 사회이다. 예로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다. 직접 물건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
자상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컴퓨터 화면에 소
개된 물품이 실물과 동일하다는 기본적인 신

지식 정보화 사회는 창의력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창의력은 획일화
된 사고의 극복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남북 대치 상황은 우리에게
사고의 틀을 강요한다. 하지만, 사유의 틀이 제한되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데는 제약이 된다. 예술이나 자연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나타나지만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가 희소한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본격적인 교류협력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성취해야 할 전제가 된다.

뢰가 있어야 한다. 제공된 지식이나 정보가
거짓이 아닐까라는 의문. 상대방에 대해 불
신을 하기 시작하면 전자상거래는 크게 위축
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결국 지식 정보화 사회가
성공하려면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가 쌓여져
야 한다. 지난 세기 말 한국 사회는 국제적인
신인도의 등락에 일비일희하였다. 신뢰 관계
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예이다.

남북 대치 상황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상
황을 의미한다. 불신 상태에서는 지식과 정
보에 대한 기밀 유지와 통제가 중요하다. 기
밀 유지와 통제가 정보 교류에 우선한 사회
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남북한간 불신의 장벽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도 지식 정보화 사회에 뒤쳐지
기 쉬운 것이다.

현재 북한이 외부의 지원없이 경제난을 극
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
려운 일이다. 1999년도 제2의 천리마운동을
천명했지만, 생산 시설의 노후화가 심하고,
내부의 투자 재원도 고갈된 상태에서 50~60

비록 북한이 경제 협력 상대로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중국·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국제 기구를 선호할지라도 국제 협력을 획득하려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표현하여 북한이 자체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정보 교류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년대 식의 노동력 동원으로 경제 회생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록 북한이 경제 협력 상대로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중국·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국제 기구를 선호할지라도 국제 협력을 획득하려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표현하여 북한이 자체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정보 교류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남북한 교류 협력 추진 방안

강압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않는 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양자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 남북 관계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양측 정부라고 할 수 있으나,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기업과 시민이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동안 남북한 교류는 물자 교류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향후 남북 교류는 지식과 정보 교류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 신뢰 구축

한국 정부는 화해, 협력 그리고 평화 정착에 토대를 두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경제 교류 협력은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을 구분하고 정부를 배제하는 '관민 분리' 형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에는 우리 개념의 순수한 민간 단체나 기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북한 정부와 한국 민간 부문의 교류라는 비대칭적인 교류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 정부가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한, 남북 교류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한국 대중 가수들의 방북 공연이나 북한농구선수단의 방한과 같이 일회성 소규모 교류 협력 관계는 북한 정부와 한국 기업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지속적이고 대규모 교류를 하려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국간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대규모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혼합된 제3섹터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기피한다고 하여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없는가. 정부는 북한 정부의 협조없이도 가능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의 수집에 보다 노력하고, 획득한 북한 관련

정보·지식을 최대 한도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며, 또한 북한 정보나 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어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되며, 일반 기업들이 대북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 및 남북 교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1999년 12월 22일 통일부 보도 자료를 보면, 1999년 5월에서 12월 21일까지 북측 가족들로부터 남측 이산 가족을 찾는 서신이 인편과 팩스를 통해 통일부에 전달된 것이 총 10 건이다. 그리고 이산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총 6 건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 명이 상봉, 1 명이 서신 교환이 성사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적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인도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

새로운 남북한 교류 협력 추진 방안으로서는 첫째, 정부는 북한 정부의 협조없이도 가능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의 수집에 보다 노력하고, 획득한 북한 관련 정보·지식을 최대 한도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며, 또한 북한 정보나 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어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되며, 일반 기업들이 대북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 및 남북 교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남북한 주민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서도 신뢰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나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체를 북한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북한 정부의 협조를 전제하지만, 북한에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관광 및 문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북한 특산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쉽게 떠오르는 아이템이다.

기업체의 교류 협력: 합리적 이윤 추구

IMF 이전에는 남북한 경제 교류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 기업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이

둘째, 기업의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기업체에게 최소한 장기적인 이윤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의 경제 희생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체가 남북 교류 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부분 북한 주민의 지식 정보화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정보통신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수록 기업체의 생산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결국 기업체의 합리적인 이윤 추구 행위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토록 할 것이다.

명확해졌다. 물론 판단은 해당 기업이 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기업체에게 최소한 장기적인 이윤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의 경제 희생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간 최대 교류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어떠한가? 분명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었고, 상징적인 면에서 해당 기업이나 국가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한국 경제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면에서, 예를 들면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남북한 TV의 수신, 통신 안테나의 설치와 한국과의 이동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기업체가 남북 교류 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부분 북한 주민의 지식 정보화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체가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 어떤 사업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크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정보통신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수록 기업체의 생산성

은 그만큼 높아진다.

북한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북한에서 구매하고 개발을 장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한의학 관련 프로그램, 교육 오락용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체의 합리적인 이윤 추구 행위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토록 할 것이다.

시민 수준의 교류 협력: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2000년 현재 한국전쟁 종전 이후 출생한 인구가 남북한 공히 3/4을 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남북 협력과 통일에 무관심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2000년대는 남북 관계가 감성보다는 이성, 명분보다는 실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수준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우려되는 남북한간 극심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연줄 사회, 즉 네트워크 사회이다. 혈연·지연·학연이 생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북 교류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이산 가족이었다. 그러

나 앞의 통계가 시사하듯이 이산 가족 1세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산 가족은 혈연집단네트워크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에 자연과 학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남북한 학생들간에 자매 학교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컴

퓨터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이며,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남북한 네티즌의 만남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공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네티즌이 만나기 위해서는 제한점이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상호 불신의 제도적 제약이 없어져야 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기가 북한 각급 학교에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남북한 학생들의 정보 교류가 순수 체육·예술이나 학문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컴퓨터라는 기계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정부에 주는 위협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교류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앞으로는 각급 학교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자매 학교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시민단체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때 자신이 쓰고 있던 소프트

셋째, 시민 수준의 교류 협력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다. 한국 사회는 연줄 사회, 즉 네트워크 사회이다. 혈연·지연·학연이 생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북 교류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이산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산 가족 1세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산 가족은 혈연집단네트워크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에 자연과 학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남북한 학생들간에 자매 학교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이며,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남북한 네티즌의 만남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공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웨어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공짜 지식과 정보를 북한에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 우리 컴퓨터를 북한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남북한 문화 동질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맺음말

21세기는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시대가 될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는 사회 변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개인 수준·기업 수준·국가 수준에서 작은 시작의 차이가 큰 격차로 드러난다. 북한 정부는 진정한 갈림길에 서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탈북자들이 국경 지역 탈출에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하였다는 보도를 북한 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머지 않아 인공위성을 이용한 개인용 통신 단말기가 널리 보급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북한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제의 모기장은 더 이상 소용이 되지 못할 것이다. **完**